

다시 한 번 도약하는 2012년

◎ 김승욱(편집인, 중앙대 교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경제성장이 뒤따랐다는 것을 역사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한 물질적 자원도 함께 주셨습니다. 로마 제국을 통해서 유럽에 복음을 전하셨고, 종교개혁 이후에는 네덜란드, 영국, 독일, 미국 등 개신교 국가들의 경제성장을 통해서 복음을 세계로 확장시켰습니다.

지난 100여 년간 한국 교회는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교육기관 설립으로 사회와 경제 발전의 초석을 놓았으며, 자유로운 민주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기독교인들이 각자 맡은 분야에서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도 교회들이 앞장을 섰으며 음악 등 문화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세기에 한국은 경제성장과 교회성장을 동시에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을 제3세계의 복음화에 크게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미 여러 가지 경로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기업의 성장과 한류 열풍은 우연한 현상도 아니고 한국인이 우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국 교회는 더욱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최근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17%에 불과하던 미국 교회는 지난 200년 동안 60%가 넘는 정도로 성장했지만, 한국 교회는 20%를 정점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회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는 인본주의 교육의 영향으로 신앙을 버리고 있고, 교회는 고령화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회에 영향을 미치지보다는, 반대로 세상 풍조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좌파와 우파로 나뉘어 극단으로 나가는 한국 사회를 화해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2년 한 해는 우선 가까운 가정의 영역부터 돌아보려고 합니다.
미디어가 바꾸어놓은 세상에서 크리스천 가정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부부가 모두 일해야 하는 직장 풍조 속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바람직한 것인지 하는 등의 주제에 대해서 생각과 삶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에 유례없는 뜨거운 새벽기도운동, 말씀공부, 부흥집회, 치유사역 등에 열심임에도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삶과 신앙이 통합되지 못한 데서 시작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고 하는 극단적인 개인구원 위주의 신앙관과 현실적인 복만을 구하는 기복신앙에 빠져서, 하나님 나라 전체를 보지 못하고, 예수님 가르침의 핵심인 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한국 교회는 사회에 대한 기독교적 가치를 전달하는 일을 등한시했습니다. 그 결과, 물질주의, 권위주의, 체면문화 등 세속적인 문화에 저항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가 세속화되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다시 한 번 도약해서 미국교회처럼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려면 예수천당을 선포하는 수준으로는 안 됩니다. 사랑을 실천해서 크리스천의 삶으로 본을 보여야 합니다. 금주·금연운동이나 윤리운동을 넘어서, 각종 세상 문화와 사조에 대항해서 싸워야 합니다. 문화전쟁의 이면에는 세계관의 경합이 있기 때문 성경에 기초하여 문화의 각 영역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월간지 『월드뷰』는 세상의 각 영역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생각을 함께 나누는 장입니다. 2012년 한 해는 우선 가까운 가정의 영역부터 돌아보려고 합니다. 미디어가 바꾸어놓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 가정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부부가 모두 일해야 하는 직장 풍조 속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바람직한 것인지 하는 등의 주제에 대해서 생각과 삶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계관 동역회 회원 및 구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